

1. 리즈

리즈대학교는 1월 입학이 가능한 학교 중 가장 북쪽에 있고, 한국에서는 직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드로에 내려서 오시는 분들 중 요크나 리즈에 어떻게 가야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년을 살기 위해 오시는 경우에는 집을 부치기도 애매해서 당장 써야 할 것들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영국 도착해서부터 좀 고생을 할 것 같아 저희도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맨체스터 공항에 내려서 기차를 타고 리즈로 이동했었는데, 당일 구입하는 기차표는 굉장히!!! 비쌌었지만, 한여름에 에어컨이 없는 만원기차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고 게다가 지정석이 아니라 자리가 비면 앉는 형식이라서 내내 서서 가야해서 정말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단선구간이 여러 군데 있어서 반대쪽 열차가 지나갈 때까지 꽤 긴 시간 기다린 적이 여러 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의 괴로웠던 경험으로 기차가 다닌다고 다가 아니라, 기차선로나 운행루틴 같은 것도 고려해야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실제로 리즈에서 노팅엄, 버밍엄 등을 다니면서 지연운행이나 결행도 많이 보았거든요.

리즈 도시 자체는 인상이 좋았습니다. 리즈대학교도 리즈 기차역에서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시티 센터에 가까워서 리즈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역 주변을 생각하시면, 도심에 있다 보니 보통 주거지로 선호하는 동네와는 좀 거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리즈도 마찬가지로 대학과 주거지로 선호되는 동네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인 슈퍼가 없는 점도, 중국마트에서 한국식재료를 살 수 있다고는 들었지만, 고려대상이었습니다.

2. 노팅엄

리즈 다음으로 방문했던 도시는 노팅엄이었습니다. 노팅엄 대학교는 기차역, 시티센터와 거리가 좀 멀었고, 그래서 트램을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트램 자체는 빠르고 편리하였는데요, 대학이 언덕 위에 좀 동떨어져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숲이 우거지고 동물들을 많이 보긴 했지만요.

노팅엄 시내를 걷고, 한국식당을 찾아갈 때 시내 분위기가 그렇게 좋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리즈 기차역에 내려서 놀랐던건데, 기차역 앞에 노숙자+구걸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이었는데요, 리즈의 노숙자는 그냥 술을 마신 느낌이라면 노팅엄 역이나 시티센터의 노숙자는 마약을 한 느낌? 하여튼 더 위험하고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트를 이용할 때도 마트 앞에 건장한 경비원분이 무장하고(은행도 아닌데!) 서 계셔서 '아 이 동네는 이런 분위기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꼈고, 결정적으로 차를 타고 지나가던 젊은 남자가 저희 가족을 향해서 "Yellow Monkey!" 라고 외쳤기 때문에 노팅엄에서 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졌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차별언행은 이후로는 겪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영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10' 등등 유사한 자료들을 찾아보니 노팅엄이 있는 중부쪽이

영국에서도 좀 살기에 좋지 않은 동네들이 많더라구요... 중부의 중심 산업이던 공업이 사그라들면서 살기 어려워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3. 버밍엄

버밍엄 기차역은 최근에 새로 지어져서 쇼핑센터를 겸하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버밍엄 대학교는 버밍엄에 내려서 다시 기차(경전철?)를 타고 가야 했는데요, 교통비가 싸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 다. 다만 버밍엄대학교 바로 앞에(뒤에?) 서울플라자라는 한국슈퍼가 있어서 대학교 근처에서 장 보기 같은 건 다 해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서울플라자가 생각보다 커서 편리해보였구요, 김밥이랑 불고기(?) 등 반찬류도 팔고 있어서 간단하게 드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학원에서 듣기로는 버밍엄 대학교는 최근에 체육관과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이용하기 편리해졌다고 합 니다.

버밍엄대학교 바로 앞에 서울플라자가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 한국분들이 많이 사신다고 합니다. 샬리오크라는 그 동네는 조금 빽빽하고 답답해보였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집들은 줄지어 늘 어서 있는데, 앞마당을 최소화하여 주차를 앞마당에 못하니 길가에 차들이 짝 늘어서 있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좀 더 이동하는 다른 동네들에도 한국분들이 많이 사신다고 들었 습니다.

4. 레딩

(1) 교통

레딩은 다른 제휴대학 도시들보다 런던과 가깝고, 게다가 가장 남쪽이기 때문에 2019년 5월 즈음 에 제휴 얘기가 나왔을 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제휴대학들을 둘러볼 때도 제휴가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레딩대학교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결국 2019년에는 제휴가 완료되지 못하였긴 하지만요. 런던에서 가까운 점도 좋긴 하지만, 제가 중점을 두고 생각했던 것 은, 런던통근권이기 때문에 기차가 매우 자주 다니고 기차선로도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나름 고 속철?) 연착이나 결행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요금도 저렴하구요(출퇴근시간 제외). 그리 고 런던 가는 기차표를 끊으면 런던시내 1일 대중교통이용권도 함께 주기 때문에 런던 시내를 다 날 때도 교통비 걱정이 없다는(영국은 교통비가 비쌉니다 ㅜㅜ) 점도 좋았습니다. 4인 가족이 다 니니까 그런 비용도 무시할 수 없더라구요.

게다가 옥스포드, 바스, 코츠월드, 스톤헨지 등 유명한 관광지들이 다 런던 서쪽, 즉 레딩에서 조 금 더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나 고속도로 등도 이용하기 편리하구요. 그런 점도 좋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손님들이 한번도 오시지 못했지만, 저희는 이런 점도 고려하였고, 히드로 공항으로 바로 연결되는 공항버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저희가 영국에 올 때도,

손님들이 영국에 오실 때도 환승을 하게 되면 불편하니까요... 코로나가 심할 때는 히드로 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만으로도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ㅌㅌ

(2) 대학 생활

1월 13일에 봄학기가 시작하였고, 시간표 상 일주일에 한번 학교에서 점심을 먹어야 했는데, 마침 그 날이 학교에 푸드트럭들이 들어오는 날이라 다양한 음식들을 맛있고 저렴하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회관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학생 가격이라 일반매장보다 저렴하구요 ㅎㅎ 거기서 파는 샌드위치도 맛있습니니다^^ 그리고 학생회관엔 이마트 에브리데이 정도 크기로, 조금 작긴 하지만, 서울플라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마음이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수업 듣고 한국 식재료를 사갈 수 있다는 점이 좋아서요. 그리고 목요일마다 학생회관 내 체육관에 알뜰장터(?)가 열려서 신선한 채소, 과일, 베이커리 등을 살 수 있구요, 바로 옆에 Coop이라는 슈퍼가 있어서 일반적인 식재료, 공산품 등은 거기서 사면 되었습니다. 학교 내 슈퍼인데 각종 맥주, 위스키 등을 빼곡히 팔고 있어서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국은 슈퍼 배송 때 술도 시킬 수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ㅎㅎ)

(3) 도시 분위기

제가 크게 느꼈던 점은, 영국에는 아시안이라고 하면 인도 등 서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월등히 많구요, 한중일 등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미국 다녀오신 분이 까만 머리가 된다고 얘기하셨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와보고나서 알았습니다 ㅌㅌ 다만, 레딩에는 화웨이 영국법인이 있고, 또 그래서인지 다른 도시들보다는 동북아시아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구요, 대학교에도 중국학생들이 많아서 심정적으로 좀 덜 외로운(?) 그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도 중국마트가 있어서 락다운 기간에는 그 곳을 이용하였습니다(학교는 다 문을 닫아서 서울플라자도 닫았었거든요 ㅌㅌ)

시티 센터에는 여러 가지 상점들이 있고 오라클이라는 큰 쇼핑센터도 있고, 존 루이스 백화점이 있습니다. 12월 말에 레딩에 도착하였을 때 크리스마스가 막 지난 시점이라 백화점 세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저렴하게 잘 장만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4) 집 구하기

레딩에 올 때는 대학교 내 가족기숙사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 혹시 들어갈 수 있으려나 기대도 했었지만 영국 학교들이 9월 신학기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어서 중간에 자리는 결국 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몇몇 집을 인터넷으로(Rightmove 사이트) 보고 뷰잉을 하고 싶다고 메일을 보내놓은 상태로 영국에 왔었구요, 크리스마스 휴가가 꽤 길어서 그게 끝나고 나서야 겨우 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시티센터에 있는 기차역 근처 노보텔에서 2주간 지냈습니다. 호텔에서 지내던 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물론 바로 근처에 세인즈버리와 맥스앤스펜서가 있어서 간식 같은 것들을 다 사먹을 수 있었지만, 조리를 할 수가 없으니 매일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구요... 일본식 도시락 체인점이 있는데 itsu는 좀 더 서양식인 것 같구요... kokoro가 저희 입맛엔 훨씬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방 2개 이상, 화장실 2개 이상인 집을 찾고 있었는데, 근사하게 방3개에 뒤뜰도 있어도 화장실이 1개인 집들도 많아서 선택지가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첫번째 뷰잉한 집은 옷장과 식탁, 쇼파만 있는 집이었는데, 일단 침대가 없어서 고민이 되었구요, 서랍장 같은 것도 없어서 그걸 다 사려고 생각하니 선뜻 선택할 수가 없더라구요. 구비된 가구들도 다 낡아서 좀 망설여졌구요. 그 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보게 되었는데, 가구들 상태도 괜찮고 퀸침대가 2개 있어서 4식구 바로 잠은 편하게 자겠구나... 싶었고, 동네 분위기도 좋아서 바로 결정하였습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21번 버스가 바로 집 앞에 온다는 점도 좋았구요. 걸어가는 거리에 맥스앤스펜서가 있어서 장 보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동네별로 분위기가 진짜 다릅니다... 가격이 좀 낮은 집은 동네를 잘 보셔야 해요 ㅜㅜ 지금 사는 동네는 아무런 나쁜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조용하고 아늑한 동네여서 그런 점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집을 구하는 것도 참 맘대로 안되더라구요... 일단 집을 보고 나서 바로 부동산에 다시 가서 계약금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걸고 나서 레퍼런스 체크(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지 재정상태, 직장 등 조사)를 하는데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영국에 아는 사람 2명의 추천을 받아오라는데.... 며칠 전 입국한 저희가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집에 꼭 들어가고 싶다면서 1년치 월세를 다 선불로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성사가 될 것 같았는데, 알겠다고 하면서도 레퍼런스 체크는 해야한다고 한국 직장의 상사 전화번호와 메일을 적어내래요... 하아.... 어찌나 답답하던지... 결국 한국에 연락은 안 한 것 같지만, 그 때 정말 마음이 힘들었네요... 돈을 내겠다는데도 뭐가 더 필요한지... 결국 며칠을 더 기다려 레퍼런스 체크 기간이 끝나고.... 또 입주는 일주일인가 열흘 후에 하라는 걸, 저희 대학교 개강하는데 그 때부터는 호텔이 아닌 집에서 살고 싶다고... 사정해서 겨우 개강날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위에 들어보니 2주면 집을 빨리 구한 편이더라구요.... 에휴... 남의 나라 나와서 사는게 이렇게 어렵나... 뼈저리게 느낀 시간들이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쪽 아파트에 살아서 주택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기숙사 아닌 바에야 뜰 있는 주택에 살자 했는데, 월세는 좀 더 비쌌지만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락다운 기간에는 집에서 나갈 수 없었는데, 플랏(3~5층 정도의 아파트 개념)에 사시는 분들은 모두 24시간 집에 있다 보니 층간소음, 음식냄새 등등 너무 고충이 심하시더라구요. 저희는 뒤뜰에 나가기도 하고 철철이 예쁜 꽃들도 많이 피어나고 해서 락다운 기간이 좀 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락다운 끝나고 영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정원 있는 사람과 정원 없는 사람의 삶의 질이 차이가 많이 났다는 조사도 보았습니다)

(5) 아이들 학교 배정

저희 아이들은 한국 나이로는 중1, 중2이고 영국에서는 7학년 9학년이었습니다. 집을 빨리 구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아이들 학교 배정 문제였는데요, 무조건 주소가 있어야 학교를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고 나서 바로 시티 카운실로 갔어요. 근데 근무일 기준

20일 안에 연락을 준다는 겁니다!!! 2일도 아니고 20일이라니! 처음엔 잘못들었나 했어요.... 그런데 진짜... 20일도 지나고 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ㅈㅈ(그것도 재촉 메일 보내니 그때서야...) 그 때 한국이 좋은 나라라는 걸 여실히 느꼈구요 ㅈㅈ 배정을 받으면 교장선생님이랑 만나고 학교 투어하는 날을 잡는데 그건 또 며칠 후로 잡아주고, 학교투어 하고 나서 진짜 등교하는 날은 또 며칠 후로 잡아주더라구요... 결국 1월 15일에 학교 신청하고, 3월 2일에 처음 등교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학교(영국 학교들은 학교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어플도 있습니다) 보내려는 욕심도 있었지만 그 정도 되고 나니 그냥 어느 학교든 가기만 하면 감사하겠더라구요... 집 구하고 학교 보내는게 이렇게 힘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6) 차 구입

레딩대학교는 저희가 사는 집에서 가깝고 또 바로 가는 버스도 있어서 차를 구입할 필요성이 적었는데, 아이들이 배정받은 세컨더리 스쿨은 차로 15분 정도 가야하는 거리라서 차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도 초등학교는 동네마다 더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있어요. 초등이면 편했을 텐데... 세컨더리는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규모가 큰 곳이 많고 그러다보니 띄엄띄엄 있더라구요)

처음에는 렌트를 고려했었습니다. 왜냐면 영국 일처리를 생각해볼 때 한국 돌아갈 때 제대로 팔고 나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렌트 비용도 1달에 100만원 이상으로 비싸고, 28일마다(4주마다) 재계약을 해야된다고 해서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차 판매 매장에서 인증 중고차로 같이 판매하고 있어서, 인증중고차로 구입하였구요. 하이브리드로 구입하니 세금은 안 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보험 가입할 때 또 한번 어려움이 있었지만(영국보험회사에서는, 학생이라고 하니 40대인데도 보험을 안 받아주었습니다) 한인보험회사로 좀 더 비싸지만 마음 편하게 가입하였습니다. 차 구입이 영국 생활 셋팅의 가장 마지막이었는데, 이 때 즈음에는 마음이 지쳐 있어서 돈보다 마음 편한 게 제일이라며 한국 업체에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7) 정리

작년에는 GMP 하시는 분들 중 10분이 안 되게 영국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진 90%가 미국으로 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영국은 정보도 많이 없고 해서 저희도 작년 여름에 영국 제휴대학들을 한번 보고 오기도 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예정에 없던 영국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다고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 경험담을 써보았습니다.

아는 분이 외국 생활은 셋팅이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영국 와서 고생해보고야 알았습니다. 마지막 셋팅으로 차 구입한게 2월말이었으니 꼬박 2달을 셋팅하느라 아등바등하였네요... 미국 가신 분들은 대학교 측에서 초기 정착 지원도 해주셔서 덜 고생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저희는 외국 생활이 처음이라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고 용감하게 그냥 왔던 것 같습니다 ㅎㅎ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최대한 준비하셔서 오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시더라도 최소한 마음의 준비라도 하시라고 경험담 적어보았습니다.